

해맞이의 고장에서 생산된 영일촌 쌀을 먹읍시다.



- 연일농협 2/10/20/40(kg) T.258-2036
- 흥해농협 2/10/20/40(kg) T.261-5010
- 기계농협 4/8/10/20(kg) T.247-2785

영일촌 쌀

사월에서 유월 사이 오월은

우리 손닿을까말까 하는 높이에서
지상을 향해 내민 초록 잎사귀들이
은은한 종소리 들려주는
오월
흐르는 맑은 물살 속 돌멩이 들춰보듯
살그머니 열어보면
어린이날, 어버이날, 성년의날, 부부의날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순한 사랑 오롯하다
오오오오오
오월의 둥근 메아리 푸르른
들녘으로 산으로 강으로 바다로
나들이 나선 가족들 스냅 사진 배경으로
슬며시 다가와 꽃 피우듯 팔짱 낀
사월과 유월 사이 오월엔
엄마의 젖을 빠는 아기 얼굴 같은
평화의 향기 샤워 가득하다
오오오오오
해맑고 둥근 웃음 싱그러운 오월

하재영 포항제철서초등학교 교사

1990년 《매일신문》신춘문예 시 당선, 1992년 《계몽사이동문학상》장편소설 당선.
동화집 『안경끼 향나무』 『할아버지의 비밀』 시집 『별빛의 길을 닦는 나무들』

열린 포항

www.ipohang.org



» 06



» 10



» 16



» 20



» 26

2009 4 CONTENTS

- 04 포항시론 | 백성기 포스텍 총장
- 06 특집 | 신진일류도시 포항건설 시민운동 1주년
- 10 포항의 장인들 | 민화 작가 이정옥
- 12 우리 고장의 전래동화 | ② 영일현 어득호 현감
- 14 노사상생토론 | 포항상공회의소장 VS 한국노총포항지부장
- 16 역사산책 | 포항의 고찰 속 문화재를 찾아서
- 18 문화마당 | 호미곶 돌문어 축제 / 포항 어린이날 큰잔치
- 20 시정브리핑 |
- 23 의정브리핑 |
- 24 포항레이더 |
- 26 I♥POHANG |
- 27 지상갤러리 |



봄을 만끽하는 시민들의 행복한 가족 나들이
사진 • 정미향

- 발행처 : 포항시 | 발행인 : 포항시장 박승호
- 편집인 : 공보담당관 방진모
- 편집담당 : 홍보기획팀장 김동완, 김경란
- 발행일 : 2009년 4월 25일
- 기획·편집 | (주)금강미디어 Tel : 054 · 275 · 0558
- 인쇄 | 남진인쇄 Tel : 054 · 274 · 1567
- 홈페이지 : www.ipohang.org

※ 열린포항은 포항시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로

시 승격 60주년이 되는 포항은 동해안의 여느 포구와 다를 바 없던 작은 어촌에서 이제는 세계적인 철강산업도시로 성장하여 국내에서 으뜸가는 첨단과학도시로 변모해가고 있습니다. '선진일류도시 건설 시민운동 추진위원회'는 경제적 규모나 물질적 생활수준의 상승과 함께 시민들의 의식수준 또한 선진화를 이루고자 지난해 발족하여 이제 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흔히들 선진국의 잣대를 1인당 국민총생산 규모로 따져 3만 불이 넘으면 선진국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세계 13위권의 경제규모를 자랑하고 있지만 10여년 가까이 1인당 국민총생산이 2만 불을 크게 넘어서지 못하고 선진국 진입이 좌절되는 것은 이에 걸 맞는 의식 수준의 향상이 뒤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선진일류도시 건설 시민운동 추진위원회가 발족된 것도 포항에서부터 의식의 선진화를 이뤄내자는 것이었으며, 포항시의 선진화 운동과 발맞추어 순수 민간운동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기초질서와 준법정신을 정착시키고, 나눔과 배려를 일상화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시민의식을 기르는데 역점을 두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올해에도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물 절약하기, 불법광고물 정비 등 주변 일상생활에서의 사소한 것에서부터의 실천과 생활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비록 작은 것에서부터의 시작이지만 이러한 행동 하나하나가 포항시민들의 일상이 되고, 포항에 정착되어 나갈 때 포항은 환동해권의 대표적 중심도시로서 세계를 무대로 뻗어나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물론, 이렇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노력이 뒤따라야만 할 것입니다. 포항 시민 모두가 선진일류도시 포항을 만들어 나가야겠다는 인식을 함께 공유하며 실천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올해 포항은 환동해시대 허브항으로 거듭날 영일만항이 개항하면 환동해권 국제물류의 중심지로서 뿐만 아니라 신성장산업 육성 거점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세계일류도시가 되기 위한 포항의 원대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포항 지역주민들의 시민의식이 크게 변화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이런 의식의 변화가 결국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최선의 방책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 번 선진화 시민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선진일류도시 포항건설 시민운동 추진위원장 백성기



선진화 시민운동으로 포항을 새롭게 디자인하자

백성기 추진위원장은

2007년 9월 포스텍 제5대 총장으로 취임했으며, 1971년 서울대 금속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코넬대에서 세라믹재료 분야를 전공하여 1981년에 박사학위를 받았다. 포스텍 부임 이후 신소재공학과 주임교수, 초대 학생처장, 기획처장, 포항가속기연구소 소장, 부총장, 대학발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포스텍이 국내 최정상급 이공계 대학으로 성장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백 총장은 포스텍을 국내 산업발전을 위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대학으로 성장시키고 2020년에는 세계 20위권 글로벌 연구중심대학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재임 중의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이공계 대학에서의 공학 교육의 가치와 중요성 및 글로벌 리더십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새로운 교육 환경 조성으로 우리 나라 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강연과 저술활동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특집 선진일류도시 포항건설 시민운동 1주년

1



2

선진일류도시 포항건설 시민운동 성공은

시민의 공감과 참여 확산에 달려 강력하고 확고한 추진시스템도 성공의 관건

● ● ● 포항은 새마을운동의 발상지이다. 대한민국 근대화의 초석이었던 새마을운동은 '의식개혁운동' 이자 '국가재건운동' 이었다. 무엇보다 세계사에 그 전례를 찾기 어려운 성공한 '국민운동' 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해 초부터 포항에서는 '선진일류도시 건설 시민운동' (이하 선진운동) 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다. 이 운동은 선진포항을 위한 '의식개혁운동' 이자 '도시재건운동' 으로 새마을운동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4월 23일은 선진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다. 선진운동의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는 지를 알아본다. [편집자주] ● ● ●

올해는 포항시승격 60주년이라는 기념비적 해이다. 이는 포항시가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로 향하는 전환기를 맞았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2009년은 포항이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는 원년이다. 포항은 지난 60년 동안 굴지의 산업도시로 성장했다. 다음 목표는 글로벌 선진도시로 발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포항은 지금 산업화시대를 지나 선진화시대로 진입하는 문턱에 와있다고 하겠다.

추진 배경

포항은 지난 40년간 세계적 철강기업으로 성장한 POSCO를 중심으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다. 근래 들어 포항은 그 산업화를 기반으로 첨단과학, 해양관광, 국제물류 등의 첨단산업 인프라가 조성되면서 도시의 색깔이 서서히 변모하고 있다. 또 지난해 2월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포항은 전국적 관심지로 부상했다. 예로부터 걸출한 인물을 배출하면 명문가문의 반열에 오르듯이 포항도 대통령을 배출하면서 명문도시의 반열에 올라 포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이를 계기로 선진운동이 태동하기 시작했다. 사실 포항은 산업화 40년 이후 새로운 발전모델인 선진화가 요구되고 있었다. 철강중심 시민의식의 고착화를 넘어 첨단과학, 국제물류, 문화관광 등으로의 의식구조 확대가 필요했던 것이다. 여기에 대통령을 배출한 명문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선진화 요구도 곁들여졌다. 무엇보다 선진화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시대정신이기도 했다. 이렇게 지난해는 산업화를 넘어 선진화라는 새로운 변화와 실천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였다. 선진운동의 태동은 너무나 당연했는지 모른다. 이런 배경으로 태동한 선진운동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 시민들의 잠재된 높은 내면적 의식을 밖으로 유도하여, 전 시민이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시민운동이며, 포항이 추구하는 선진일류도시건설을 앞당기고자 하는 자발적인 선진화시민운동으로서, 대통령 배출 도시로서 시민 모두에게 자긍심을 일깨우고, 시민의 화합된 역량으로 사회 전반에 걸친 선진시민운동을 전개하여, 품격 있고 존경받는 도시로 거듭 나고자 추진하는 운동이다.

- 1 지난해 4월 포항역 광장에서 열린 선진일류도시 건설 시민실천대회 모습
- 2 시민실천대회를 마친 각단체들이 기부 캠페인을 벌이는 모습
- 3 대점동 시청사 내에 설치된 추진위원회 사무실 개소식 모습



3



4



5



6

- ④ 지난 4월 있었던 선진일류도시 건설 시민실천대회 모습
- ⑤ 새마을부녀회가 선진도시 포항건설시민운동 동참을 선언하고 있는 모습
- ⑥ 지역 기관단체들의 선진일류도시 건설 캠페인 모습
- ⑦ 시민의 날 행사 참석자들이 선진도시건설을 결의하고 있는 모습

성과와 과제

지난해 2월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선진일류도시건설 시민운동 추진계획'이 수립되었고, 4월 23일에는 1만여 시민들이 포항역 광장에서 '선진일류도시 건설 시민실천대회'를 가졌다. '선진일류도시 시민선언문'이 발표되고, 참석 시민들은 선진일류도시 건설 가두 캠페인도 전개했다.

또한 5월에는 가로질서, 시민의식, 선진기업, 환경, 교통치안, 위생 등 6개 분과로 구성된 '선진일류도시건설 시민운동 추진위원회' (위원장 백성기 포스텍총장) 발대식이 있었다. 이어 시청사 내에 마련된 사무실 개소식도 열었다. 그리고 선진운동 포어 스티커가 다양하게 제작·배부·부착되었고, 엠블럼이 거리 현수막 등에 사용되면서 선진운동은 시민에게로 더욱 가깝게 다가갔다. 이는 선진운동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음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했다.

아울러 시민들의 선진운동 참여를 촉구하는 각종 홍보 활동도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추진위는 매월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시민들이 생활화하는 쪽으로 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분과위원회별로 실천과제에 따른 캠페인도 전개됐다.

이렇게 시작된 선진운동은 '개혁'을 가치이념으로 하면서 '개선'을 실행방법으로, 그리고 '선진'을 최종목표로 추진되었다. 여기에는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선진운동을 전국을 선도하는 새로운 국민운동으로 승화시키겠다는 자세와 각오도 함께 담겨 있었다.

추진위는 선진운동을 통해 기초적인 법과 질서가 정착되고 친절이 생활화된 모범적인 도시, 사람 중심의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도시, 다시 찾아오고 싶은 도시, 다시 투자하고 싶은 도시 포항을 건설한다는데 추진목표를 두었다. 이에 따라 정신적 선진화, 환경적 선진화, 경제적 선진화, 국제적 선진화 추진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최근에는 종교·청소년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김상규 신부)가 신설되어 기초 및 준법 질서 확립, 나눔과 배려, 그리고 친절의 생활화를 표방하는 선진운동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종교·청소년분과 탄생으로 추진위는 7개 분과위원회 52개 단체가 참여하는 조직으로 확대되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선진화 시민운동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선진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은 많을 것이다. 선진의식의 생활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진운동은 지속성을 지녀야 한다. 그리고 시민들의 공감과 참여, 실천이 절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선진운동의 중심인 추진위원회가 지속적으로 확고할 수 있는 체계 마련과 시민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제는 시민 공청회나 추진위 워크숍을 통해 풀어야 할 문제이다. 그래서 오는 5월 7일에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추진위 관련 인사 180여 명이 참여하여 선진운동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워크숍을 가진다. 쉽지는 않겠지만 활발한 토론을 통해 선진운동이 더욱 탄력을 받을 있는 결과를 도출했으면 한다.

향후 추진 방향

시승격 60주년인 2009년은 포항이 지금까지 이룩한 성공적인 역사를 재조명하면서 정체성을 새롭게 확립하는 것은 물론 시민화합과 지역통합, 그리고 꿈과 희망의 미래를 준비하는 시기가 되어야 한다. 특히 '선진일류도시 포항건설'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이루기 위한 선진운동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시기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올해 선진운동은 시승격 60주년인 2009년이 선진일류도시로 향하는 명실상부한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한 차원 높은 시민운동으로 승화할 수 있도록 시민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민생현장의 어려움부터 풀어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물론 시기적 적정성에서는 다소 논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려울수록 '나눔'을 생활화하지는 운동이 꼭 필요하고, 이러한 '나눔'은 선진운동이 추구하는 최고 수준의 가치일 것이다.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선진운동의 성공은 확고하고 강력한 추진시스템으로 시민의 공감과 참여를 얼마나 이끌어 내느냐에 달려있을 것이다. 그래서 현재의 추진위가 범시민운동기구로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의 직능중심을 넘어 행정기관, 교육기관, 시민단체, 자생단체 등은 물론 심지어 가족이나 개인까지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조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민의 공감과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마음의 인프라부터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선진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 공청회 등을 통해 선진운동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지역 언론 등과 공동으로 선진운동에 대한 대대적인 시민참여 캠페인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주문한다. 아울러 포항시도 선진운동이 포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추진위와 포항시가 함께 'TF팀'을 구성해 보다 유기적 관계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박승호 포항시장도 "선진운동은 시민의 생활은 물론 도시의 명운이 걸린 것으로 중요한 시정 분야가 아닐 수 없다"며 "선진운동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각종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선진운동에 대한 시민 여론 전달과 부진한 사업에 대한 건의 및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5,000여 명에 달하는 '선진화모니터요원'을 운영하는 한편, 선진운동 저변확대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교육청·검찰·경찰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백성기 추진위원장은 "포항은 전통과 첨단산업, 자연과 인위적 인프라가 골고루 구축된 도시로 선진시민의식만 갖춰진다면 세계 명품도시 못지않은 훌륭한 도시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선진운동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7

| 편집실



민화, 나비 되어 날다

민화를 통하여 예술혼을 일깨우는
진솔당眞率堂 이정옥 민화작가

민화는

다난한 인생을 해학과 풍자, 생활 속 은유로 해석하고 자유분방한 문양과 형식을 통한 다양하고 강렬한 색채표현으로 조상들의 삶을 가장 진솔하게 표현한 우리민족 아름다운 예술이며 문화유산이다. 일제강점기와 암울했던 해방 후 혼란기 그리고 고도산업사회로 성장기를 거치면서 철저히 배임(背任)되고 소멸되었던 전통 한국민화를 20여 년 동안 작가의 영감과 예술혼을 담아 고스란히 재현 발전시켜 온 이정옥(57) 민화작가.

포항에서 태어나 대구화단(畫壇)에서 서양화가로 활동하다가 그루터기가 있어야 민화의 싹을 피울 수 있다는 신념으로 민화재현의 중요성을 깨닫고 홀로 자료를 조사하고 원형을 복원 하는 등 전통 민화의 다양한 세계를 창조코자 노력한 결과 지금은 우리나라 민화의 독보적인 작가로 인정받고 있다. 작가의 민화작품은 새로운 신소재를 통하여 작품 영역을 넓혀가기도 한다. 벨벳(비로도)을 통한 생활의 다양한 소품에서부터 '왕과 나', '바람의 화원' 등 유명한 드라마와 영화에서 배경이나 소품으로 사용될 만큼 작품이 다양하고 우수하다. 특히, 작가는 예술가로서 작품 창작에만 몰두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민화를 알리고 보급코자 지금까지 국·내외를 넘나들며 유명 갤러리에서 수많은 전시회를 개최하여 일반인에게 널리 아름다운 민화를 소개하고, 대학에서 전통 민화에 대한 강좌도 하고, 포항여성문화회관에서 민화를 소재로 한 생활강좌를 맡아 후학을 위한 지도에도 다년간 노력하였다고 한다.

민화는 세속의 엄격한 규범을 뛰어넘어 미추(美醜)의 판단을 엮고 선악의 시비를 떠난 무상의 그림, 무상의 세계, 화법(畫法) 이전의 화법이며, 잘 그리려 욕심 부리지 않아도, 하나 가득 주장을 담아내지 않아도, 허점과 빈틈이 그대로 깨달음으로 완성되는 세계라고 믿고 그 자연적이고 순박한 마음으로 민화를 그리고 있다. 이런 민화에 대한 시선이 곧 작가의 생활이며 철학이라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어릴 적 배움을 위해 고향 포항을 떠나면서 언젠가 다시 돌아와 살겠노라고 다짐했던 마음으로 지금도 포항에서 예술 강좌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평소 소박한 웃음과 더불어 따뜻한 마음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방 같은 공간인 화실 겸 작업실인 진솔당을 대이동에 운영하고 있다.

민화는 국내에서보다 외국에서 오히려 그 우수성을 찬사 받고 있는 형편이라고 한다. 앞으로 우리 민화의 다양한 색채나 문양을 활용한 독특한 디자인이나 예술적 콘텐츠로 활용되어 우리 고유 수려한 색채의 전통 민화가 세계에서 그 빛을 발하며 미래 새로운 성장산업의 한 축이 될 수 있다는 안목으로 우리 민화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두고 있다고 했다. 또 각처에 박물관이 늘어나고, 이제는 전통문화가 새로운 볼거리와 체험 공간, 여가선용의 한 트렌드로 인식되면서부터 창작에 전념하고 몰두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의 작업실을 마련하여 모시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도 두어 곳 있다. 그러나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과 남다른 애착으로 아직은 포항에서 작품창작과 후학지도와 사회봉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지금은 민화를 배우는 모임인 진솔당회원이 늘어나 각자의 작품영역을 개척하고 포항여성문화회관을 비롯한 다양한 강좌도 맡아주고 있어 참 흐뭇하다고 하는 작가의 모습에서 오로지 한평생 민화의 복원과 재창조과정을 통하여 우리 민화가 가지는 소박하고 풍자적이며 다양한 색채와 많이 닳은 것 같기도 하다. 결국 이정옥 민화작가 자신의 인생도 어쩌면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승화되어 민화 속에 활짝 피어난 목련꽃 가득한 '화점도' 같이 편안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시민들과 더불어 살아가는지도 모른다.



1 전통창호문과 민화가 한데 어우러지게 만든 벽체 패널장식

2 자신의 인생도 어쩌면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승화되어 민화속에 피어난 목련꽃 같이 편안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다.

3 민화속의 나비가 금방이라도 날아 오를것 같다

“용기

사려! 용기”
기운이 빠져서 이제는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점심까지 굶은 터라 배가 등쪽에 달라붙을 것 같았답니다. 용기를 팔아야 국밥도 챙기고 장을 봐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해가 누엣누엣 지건만 오늘도 공치는가 봅니다.

용기장수는 당수나무 밑에다 지계를 내리고는 오줌을 누었습니다. 막 바지춤을 끌어올리는데 ‘와장창’ 난데없이 일어난 하늬바람이 용기 짐을 산산조각내고 말았답니다.

“이 일을 어째! 이를 어찌노!”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늙은 어머니와 고물고물한 아이들 셋, 아내까지 여섯 식구가 용기에 매달려 살았답니다. 그런데 그 용기를 몽땅 다 깨버렸습니다. 용기장수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땅을 치며 울기 시작했어요.

“아니, 여보시게! 왜 이렇게 울고 있는가? 용기는 또 왜, 길바닥에다 이렇게 패대기를 쳐놓고……?”

마침 불과하게 술에 취한 정 선달이 그 곁을 지나갔답니다.

“아이쿠 말도 마소. 이 용기 짐 깨진 거 보소. 우리는 꼼짝없이 굶어죽게 되었소. 아이고, 늙으신 우리 엄니, 불쌍한 우리 엄니.”

“그래, 어느 놈이 이 용기 짐을 차서 깨단 말인가?”

“어느 놈은 어느 놈이겠소. 저 하늬바람이란 놈이지.”

“하늬바람이라고?”

정 선달은 혀를 끌끌끌 차면서 한참동안 양산맥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늬바람이 지계를 쓰러뜨렸다 이 말이제?”

“입 아프게 왜 자꾸 물어셨소. 한 번 말했으면 됐지.”

용기장수가 울다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사람아! 날 따라 오게.”

잡혀 온 하늬바람

●●● 옛날 영일현에는 명판관으로 소문이 자자했던 어득호 현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

| 글 | 김일광 · 동화작가

| 그림 | 최수정



“나는 못 가요. 용기 다 깨놓고 어디를 간단 말어요.”

“어허, 이 사람이 말귀를 못 알아듣네. 용기 값 받기 싫으면 따라오지 말게나.”

정 선달은 비틀비틀 앞서서 걸어갔습니다.

“뉘라고요? 용기 값어요?”

용기장수는 지계를 짊어지고 허둥지둥 정 선달 뒤를 따라붙었습니다. 정 선달은 집으로 가서 긴 편지를 썼습니다.

“지금 당장 현청으로 가서 사또에게 전하시게. 꼭 사또에게 전해야 하네.”

용기장수가 동헌에 닿았을 때는 동헌 문이 굳게 닫혀져 있었습니다. 다짜고짜 동헌 문을 두들겼습니다.

“사또를 만나게 해주세요.”

“야, 이놈아! 사또가 어디 니 집 강아지 이름이나? 감히 사또를 만나겠다고, 썩 꺼져.”

그러나 용기장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밀어내면 다시 달라붙고 문을 닫으면 문고리에 매달렸습니다.

얼마나 문지기와 씨름을 했을까요.

“무슨 일이야? 왜, 이리 소란하지?”

현감이었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사또님을 만나겠다고…….”

문지기가 얼버무리는 사이에 용기장수는 마당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현감은 정 선달의 편지를 훑어보고는 용기장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네 용기를 깨뜨린 하늬바람에게

용기 값을 받아 달라 이 말이나?”

“예예! 그게 좀…….”

용기장수가 들어봐도 말이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바람에게 용기 값을 받다니요. 술 취한 정 선달이 장난을 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정 선달의 말에 의하면 하늬바람이란 놈이 참으로 고약한 놈이다.”

“사또! 그게 아니라.”

“아니다. 내 그 놈을 잡아다가 용기 값을 받아낼 터이니 기다리도록 해라.”

현감은 그 밤에 아전과 사령들을 불렀습니다.

“너희들은 듣거라. 지금 당장 하늬바람이란 놈을 잡아들이거라.”

“예예? 사또, 하늘을 제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바람을 잡아들이다니요!”

“이놈들이! 바람을 잡을 수 없다면 바람을 불게 한 놈을 잡아들이면 될 것 아니냐?”

서로 얼굴을 쳐다보던 아전들 중 하나가 무릎을 쳤습니다.

“사또! 하늬바람을 불게 한 사람 말이지요?”

“그렇다.”

그 아전은 사령들을 데리고 부조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 돛을 내리고 있는 장삿배 선주들을 모조리 잡아왔습니다. 현감은 영문도 모른 채 잡혀온 선주들을 향하여 호통 쳤습니다.

“선주들은 잘 들어라. 너희들이 오늘 낮에 저지른 일을 알렸다.”

“저희들은 아무 잘못이 없나이다. 오늘 한 일이라고는 배를 동해로 빼내기 위하여 하늬바람이 불기를 기도한 일 뿐이옵니다.”

“바로 그 것이니라 너희들이 부른 그 한 줄기 하늬바람 때문에 저 용기장수는 전 재산인 용기가 다 깨져 버렸다. 그것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그 책임이 저희들에게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럼 누구에게 있단 말이나. 늙으신 어머니와 저 용기장수 가족을 굶어죽게 해야겠느냐? 너희들에게는 몇 푼이 되지 않지만 저 용기장수에게는 전 재산이니라 함께 돕도록 하는 게 어떠냐?”

현감은 목소리가 자분자분해졌습니다. 그제야 선주들은 현감의 속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 웃으며 배 한 척마다 두 냥씩 돈을 거두어 용기장수에게 건넸습니다.

밤늦게까지 동헌 마당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은 기분 좋게 돌아갔습니다. 용기장수는 물론 장삿배 선주들도.

4월도

어느덧 중순에 접어들고 꽃이 피기 시작한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완연한 봄이 되었지만 우리나라 경제는 아직 추운 겨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가정의 달 5월! 가족들과 함께 어울려야 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경제상황을 비추어볼 때 우리 직장인들은 그 작은 기쁨조차 누리기가 쉽지 않다.

최근 직장인들 사이의 안부인사 중 '자네 회사는 어때? 또는 실직 당하지 않고 잘 다니고 있어?' 이런 말이 유행이라고 한다. 조만간 안부인사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시대가 오는 것은 아닐까?

세계경기 침체의 그늘 아래 우리나라 경제의 원동력인 제조업이 10년만에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으며, 수출길이 막히고 내수마저 부진해지자 공장들이 속속 생산을 줄이거나 아예 중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조업 일자리 숫자가 10년 만에 최저수준으로 추락했고, 일자리 감소율과 감소폭 역시 10년 만에 가장 크다.

이런 와중에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는 노사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생산성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소식을 접했다.

문득 2006년 여름이 주마등화처럼 스쳐간다. 그 당시 건설노조 파업은 근로자와 경영인, 시민과 근로자 그리고 동료 상호간에 반목과 질시를 보내면서, 우리를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공황상태에 빠트렸다.

우리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상생의 노사문화를 통해 우리 모두가 살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값진 교훈을 얻었다.

그것은 바로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은, 노사상생의 길이란 것을~~"

노사가 힘을 합쳐 경제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상생 전략이 필요한 지금, 서로의 불필요한 출혈로 인해 더욱 수렁에 빠지는 누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며, 노(勞)와 사(使)가 진정으로 하나되어 기업하기 좋은 도시 포항, 세계속의 포항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시장효율성 높이는 상생 전략되어야

최영우
포항상공회의소 회장

최근

우리경제는 금융, 실물 동반 위기에 따른 유례없는 경제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 2009년도 노사관계는 안정과 불안 요인이 병존하고 있는 것으로 전망되지만 위기극복을 위한 상생의 노사관계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한국 노사관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정부 위주의 일반적 노사관계라는 것이다. 21세기 참여 협력적 노사관계 실현과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노사협력 뿐만 아니라 반드시 참여적 노사관계를 동시에 진행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업이나 정부는 노조를 견제하기 보다는 노사관계가 좋은 기업이나, 선진국형 노사관계 모습 등을 보면서 노조의 긍정적 기능을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노조에 대해 강압적인 전략이 아니라 포용전략을 사용함으로써 모두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우리 노동계 역시 우리 사회의 책임있는 주체 세력의 하나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내부적으로도 많은 자각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단기적 분배위주의 기업별 노사관계 틀 속에서는 노동운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하기에는 노동환경이 너무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노동이슈 또한 기업내의 분배 중심에서 고용·교육·복지·인적자원 개발 등 사회 전체의 중장기적 이슈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체제에서는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 양보를 바탕으로 하는 노동정책은 지양을 하고 노사가 주도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경제를 안정시키고 한국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켜 국민의 보편적 삶이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국면에서 상생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노사관계 안정화와 같은 소극적인 측면보다는 장기적인 안목과 전략적인 선택을 통해 노사관계 품질이나 노사관계 경쟁력을 높이는데 노사가 다같이 노력하여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함은 물론 정부 또한 기존의 규제나 개입이 아니라 노사관계 자율화의 원칙 내지 상생적 노사협력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이럴 때 비로소 우리 앞에 노사상생 및 산업평화는 더 한층 가까이 다가와 있을 것이다.

포용전략으로 발전적 노사관계 정립해야

강학중
한국노총포항지부장



1

보경사

는 송라면 내연산에 위치해 있다. 602년 진나라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신라 지명법사가 진평왕에게 “동해안 명산에서 명당을 찾아 자신이 진나라의 도인에게 받은 팔명보경을 묻고 그 위에 불당을 세우면 왜구의 침입을 막고, 이웃 나라의 침입도 받지 않으며 삼국을 통일할 것”이라 건의했고, 이에 진평왕이 그와 함께 내연산 아래에 있는 큰 못에 팔면보경을 묻고 못을 메워 금당을 건립하고 보경사라고 했다고 전한다.

보경사원진국사비 | 보물 제252호 고려 중기의 승려 원진국사(1171 1221) 신승형의 탑비이다. 보경사의 주지가 된 원진이 51세로 입적하자, 고종은 그를 국사로 예우하고, 시호를 ‘원진’이라 했다. 비는 당시에 유행하던 양식으로 비문에는 원진의 생애와 행적이 기록되어 있다.

보경사부도 | 보물 제430호 보경사 뒷산의 중턱에 서 있는 묘탑으로, 원진국사의 사리를 모셔두고 있다. 전체적으로 8각형을 기본으로 삼고 있으나, 몸돌이 지나치게 길어 전체가 길쭉해 보이며 너비도 좁아 안정감이 적은 특징이 있다.

보경사 오층석탑 | 경북유형문화재 제203호 고려 현종 14년(1023)에 건립된 이 석탑은 일명 ‘금당탑’이라고도 한다. ‘보경사금당탑기’에 의하면 1023년 3월에 도인과 각인, 문원이, 절이 있는데 탑이 없을 수 없다 하여 서로 의논하고 발원하여 시주를 얻어서 세운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탑의 높이는 5m로 통일신라시대의 양식을 계승한 석탑이다.

보경사 적광전 | 경북유형문화재 제254호 현재의 적광전은 1677년(숙종 3)에 중건한 것이다. 그 후에도 몇 차례의 중수가 있었고, 근세에는 1932년에 중수되었다.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겹처마, 맞배지붕의 목조와가로 되어 있다.

법광사지

는 신광면 상음리 967번지 일대 삼국시대 신라의 사찰 법광사가 있던 자리로 사적 제493호이다. 법광사는 신라 진평왕(579~631) 때 왕명에 의하여 경주 북방 80리 위치에 창건된 것으로 전한다. 규모가 525칸에 이르는 큰 사찰이었으나 임진왜란 때 모든 건물이 불타 없어지고 몇 점의 석조유물만 남아 창건 당시의 모습을 엿보게 한다. 임진왜란 때 파손을 면하고 현재까지 남아 있는 석조 유물 중에는 이중기단 위에 4층으로 된 사리탑과 새로 지은 법광사 대웅전 내에 있는 연화석불대좌, 그리고 사적비와 쌍두귀부, 불교의식 때 부처와 보살의 공덕을 기리는 석조당간지주 등이 있다.



2

● ● ● 불교가 한반도에 전래된 것은 1600여 년 전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장구한 역사 속에서 불교는 우리 민족의 문화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으며, 현재까지 그 찬연한 문화의 유산을 남겨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부분 고찰은 경치 좋은 명산에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고찰을 찾아보는 일은 산도 오르면서 고찰과 문화재도 살필 수 있는 일석삼조의 이점을 가진다. 더욱이 고찰일수록 우리만의 다양하고 독특한 정서와 문화를 잘 담고 있다. 포항지역에도 찬연한 고찰과 함께 귀중한 문화재들이 곳곳에 있다. ● ● ●



3

오어사

는 오천읍 운제산 동쪽 기슭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라 진평왕 때 창건하여 처음에는 ‘항사사’라고 불렀다. 후에 신라 고승 원효와 혜공에 얽힌 설화로 오어사로 부르게 되었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절 이름 가운데 몇 안 되는 현존 사찰의 하나이다. 혜공·원효·자장·의상 등의 승려가 기거했던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현재 정내에는 대웅전을 비롯하여 나한전, 설선당, 칠성각, 산령각 등의 건물이 남아 있다. 사찰 주변은 운제산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오어의 푸른 물이 장관을 이루고 있고, 부속 암자로 기암절벽 위의 자장암 및 서쪽의 원효암 등 부속암자가 있다.



4

오어사동종 | 보물 제1280호 오어사동종은 신라시대 종의 형태를 하고 있는 고려 범종으로 종의 꼭대기 부분에 종을 매다는 역할을 하는 용뉴와 소리의 울림을 도와주는 용통이 있다. 고려 고종 3년(1216)에 주조되었고, 무게가 300근에 이른다.

오어사대웅전 | 경북 문화재자료 제88호 현재의 대웅전은 조선 영조 17년(1741)에 고쳐 지은 것이다. 앞면 3칸 옆면 2칸 규모로,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인 팔작지붕으로 꾸몄다.

| 글 | 편집실

- 1 내연산 보경사 전경
- 2 법광사지 쌍귀부
- 3 법광사지 금당지 초석
- 4 운제산 오어사 전경

[행사]

» 제3회 전국 무용 경연 대회

- 주최주관 : 무용협회 포항지부
- 일 시 : 2009년 4월 26일 09:00~11:00
- 장 소 :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평양예술단 선교단 초청공연

- 주최주관 : 대한예수교 장로회 포항노회 남북한통선교위원회
- 일 시 : 2009년 4월 30일 15:00~17:00
- 장 소 :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초청공연, 버자이너 모놀로그

- 주최주관 : 포항문화예술회관 / 포항시
- 일 시 : 2009년 5월 6일~9일 19:30, 10일 15:00
- 연령제한 : 성인 (전석 10,000원)
- 장 소 :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정신장애인을 위한 음악회

- 주최주관 : 포항문화예술회관
- 일 시 : 2009년 5월 14일 11:00~13:00
- 장 소 :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포항시향 95회 정기연주회 -봄의 빠꾸기를 맞이하여

- 주최주관 : 포항문화예술회관
- 일 시 : 2009년 5월 15일 19:30~21:30
- 장 소 :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차향이 있는 작은 음악회

- 주최주관 : 포항문화예술회관
- 일 시 : 2009년 5월 20일 11:00~12:00
- 장 소 : 문화예술회관 전시실

» 가족뮤지컬, 뽀로로와 비밀의 방

- 주최주관 : 포항문화예술회관 / 포항시, 포항MBC공동
- 일 시 : 2009년 5월 23일 14:00, 16:00, 19:00
2009년 5월 24일 11:00, 14:00, 16:30
- 장 소 :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관 람 료 : R석(20,000원), S석(15,000원)

[단신]

» 영암도서관으로 봄나들이 떠나요!

영암도서관이 지난해 최첨단 RFID시스템을 도입한데 이어 올봄에는 낡은 서가를 교체하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이에 따라 1층은 어린이자료실·유아방·종합자료실로, 2층은 디지털자료실·정기간행물실·강좌실로 구성하고 2·3층에는 350석 규모의 자유열람실을 학습공간으로 제공키로 했다. 특히 새롭게 신설된 유아방은 엄마와 아기가 편안하게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져 지역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영암도서관은 어린이의 독서익을 고취시키고 독서문화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어린이 독서회 문집 [책사랑 꿈사랑]을 발간하고, 단순한 도서열람을 벗어난 동화구연, 영어스토리텔링, 어린이독서회, 역사논술, NIE활동, 북아트 등 문화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 '이팝작은갤러리' 올 2번째 전시회 가져

포항지역 이색적인 전시공간인 '이팝작은갤러리'(흥해 중학교 앞)에서 지난 3월 '제2회 포항관광사진 전국공모전'에 이어 'NOW 수채화'의 수채화 40점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시한다. 이번 전시회는 수채화를 배우면서 화폭에 열정을 쏟아 붓는 주부들로 구성된 'NOW 수채화' 동호회 회원 15명이 '봄맞이 소품전'이라는 주제로 소박하고 정감있는 자연주의적 경향의 수채화 작품 40여 점을 선보인다. 신청방법은 포항시청 문화관광과(270-2265)로 문의하면 된다.

» 올해의 One Book 행사

일 시	내 용	장 소
3월27일	원북 선포식	동해석곡도서관 개관식
5월	원북 낭독회	포은도서관
6월	원북 토론회 개최	포은도서관
9월	원북독후감 공모/가두캠페인	중앙상가 실개천 일원
9월26일 14:00	원북작가 "신경숙" 초청문학 강연회 및 사인회 개최	포항시청 문화복지동
10월	테마문학기행	경남하동 '토지문화관' (예정)

※ '올해의 책'으로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 선정



제2회 호미곶 돌문어 축제

제2회 호미곶 돌문어축제가 오는 5월 23일부터 24일까지 대보항 특설무대 및 호미곶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를 동안 활문어잡이 등 체험행사를 비롯해 다양한 볼거리와 이벤트가 펼쳐질 예정이다. 축제일정과 프로그램은 아래 표와 같다. 특히 호미곶 돌문어는 심해에서 어획되는 대형문어보다 육질이 연하고 더욱 쫄깃쫄깃한 맛을 느낄 수 있는 포항의 특산물이다. 그리고 문어에는 타우린 성분이 많아 학생들의 시력회복과 빈혈방지는 물론 콜레스테롤의 담석을 녹이는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동맥경화, 간장병, 변비, 당뇨병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첫째날 (5월23일)

시간	행사명	행사내용	부대행사
12:00~	식전행사	▶ 풍물&김놀이(호미곶 농악회/최명숙 외 9인) ▶ 독도수호 퍼포먼스(주관경북매일신문사)	상설판매장 운영
13:00~	개막식	▶ 어선 퍼레이드 입학 ▶ 돌문어 노래발표 등	
13:40~	내빈 이벤트행사	▶ 문어비빔밥 퍼포먼스 ▶ 문어 예쁘게 썰기 맛보기	
14:10~	식후공연 체험행사 (체험예약)	▶ 소리춤 군무 ▶ 서커스 공연 ▶ 초대가수 공연 ▶ 문어지식 OX 퀴즈 등 ▶ 활문어 잡기 ▶ 잡은 문어 삶아먹기 ▶ 어선승선체험(대보항) 등	경품행사
18:00	섹소폰 연주회	▶ 무드음악	
19:00~	야간공연 등 폐회	▶ 노래/장기 자랑 ▶ 초대가수공연 ▶ 불꽃쇼 ▶ 참가자 전체 어울림 마당 등	야간 먹거리장터

■ 둘째날 (5월24일)

시간	행사명	행사내용	부대행사
05:30~	선상 해맞이	▶ 인터넷 예약자에 한하여 입수 가능	해맞이광장 일출관광
09:30~	체험행사	▶ 문어 족집개 경매	
10:00~	문어 썰기	▶ 관광객 릴레이방식	시식행사
10:30~ 12:30	무대공연	▶ 초대가수 ▶ 품배(각설아·성춘향) ▶ 판소리명창 ▶ 민요&고전무용 ▶ 소리춤 ▶ 입춤 등	경품행사
13:00~ 14:00	체험행사 (체험예약)	▶ 활문어 잡기 대보2리 공유수면 일원 ▶ 잡은 문어 삶아먹기(봉사부스) ▶ 어선승선체험(대보항 선착장) 등	대보2리 선주회 수산 경영인회
14:00	장기자랑	▶ 노래자랑 ▶ 장기자랑 ▶ 합창단	상설무대
16:00	초대가수 등	▶ 초대가수공연 ▶ 한미당 디스코	

» 제16회 포항어린이날 큰잔치

- 주최주관 : 포항시 / 경북매일신문
- 일 시 : 2009년 5월 5일 09:30~16:00
- 장 소 : 환호 해맞이 공원
- 참여대상 : 어린이 누구나 및 가족
- 행사내용 : 태권도 시범, 119화재진압시범, 어린이 밸리댄스 공연, 인기가수(한다연)공연, 로봇체형, 스틸러스 팬사인회, 내가 짱이야(댄스대회), 백일장 및 사생대회, 경품 추첨 등
- 문의전화 : 시청 여성가족과 054-270-3025
경북매일신문 054-248-3333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 포항소개 '열풍'



일본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포항 알리기가 일본 현지언론을 통해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 3월 28일 일본 3대 신문사 중 하나인 아사히신문(朝日新聞) 1면 기사로 일본인 관광객 1만 명 유치전략에 관한 기사가 보도되었고, 이어 30일에는 “해가 뜨는 포항, 100년전 구룡포의 추억” 등을 주제로 취재한 「잇뽀우(一報)월요일」이 나고야 중부일본방송국(CBC)을 통해 방영됐다. 아사히신문은 기사에서 포항시가 부산과 경주에 비해 일본에서 지명도는 낮지만 역사적·산업적으로 일본과 인연이 깊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일본인 관광객 유치전략에 힘을 기울이는 내용을 시작으로 부산과 근접한 도시라는 점, POSCO와 함께 최근에는 첨단과학기술분야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는 점, 그리고 대게와 과메기 등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다양한 먹거리를 소개했다. 특히 일본어업인들이 살았던 구룡포에는 일본식 가옥 수십채가 남아 있고, 시에서 구룡포가옥을 보존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CBC취재팀은 지난 3월 23일부터 2박3일간 포스코 역사관, 죽도시장, 호미곶 일출, 구룡포 일본인가옥 거리, 보경사, 대통령 고향인 덕실마을, 중앙상가 실개천, 그리고 북부해수욕장 야경 등을 촬영하여 같은 달 30일 CBC의 「잇뽀우(一報)월요일」프로그램을 통해 포항의 관광자원을 영상으로 방영했다. (사진은 아사히신문 3월28일자 1면에 실린 포항관련 기사)

구룡포일본인가옥 등은 관광상품으로 매력 만점

2박3일 일정으로 포항의 관광지과 먹을 거리 등을 취재하고 3월 25일 일본으로 돌아간 나고야 중부일본 방송국 오타니 사요 PD(여·30·사진)는 포항이 구룡포 일본인 가옥과 중앙상가 실개천 등 매력적인 요소를 갖춰 여행사와 연계해 음식투어상품을 개발하면 일본인 관광객 유치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포항에 촬영차 온 것으로 알고 있다. 무슨 촬영인가? 해가 뜨는 고향 포항, 100년 전 구룡포의 추억이라는 제목의 10분짜리 영상이다. 주로 포항의 관광지와 먹을 거리, 일본과 포항의 관련성 등을 취재해 방송으로 내보낼 계획이다.

취재해 보니 포항에 대한 느낌은 어땠나? 포스코가 있어서 공업도시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깨끗해서 놀랐다. 또 호미곶 광장과 중앙상가 실개천과 같은 예쁜 거리가 많아 살기 좋은 도시라는 생각이 들었다. 촬영 중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구룡포 사람들이 자신이 구룡포인이라는데 긍지가 대단했다는 것과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임해줘 감동을 받았다.

특히 포항을 취재하게 된 계기는? 박승호 포항시장의 취재요청 서한문을 받았다. 포항시가 구룡포 일본인 가옥을 복원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과 일본 기업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취재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오기를 잘했다고 생각한다.

포항시가 일본인 관광객 1만명 유치를 선언했다. 관광지로 인상 깊은 곳이 있었는가? 포항에서 관광객 유치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 큰 감동을 받았다. 포항은 나고야처럼 큰 도시는 아니기 때문에 개인 여행객을 유치하기 보다는 여행사와 연계하여 상품을 개발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 구룡포 일본인 가옥은 일본사람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매력적인 관광요소라고 본다. 또 죽도시장의 해산물도 싱싱하고 가격경쟁력이 있다고 본다. 호미곶 광장과 중앙상가 실개천에서도 작은 감동을 받았다. 이런 요소들을 잘 엮으면 관광상품으로 관점을 것 같다.

아쉬운 점도 있을텐데……. 예를 들어, 삼계탕 가게에서 삼계탕을 먹었을 때 그 음식에 대한 특색을 살려, 어떠한 재료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등에 대한 소개가 있다면 좋겠다. 포스코를 방문했을 때 느낀 것인데 포스코에서 생산한 철로 만든 제품을 단지 선물용으로 주었는데 포스코에서 만든 제품을 직접 판매를 한다면 더 강한 인상을 남겨주게 될 것 같다. 또, 포항하면 대게밖에 떠오르는 게 없다. 포항의 특산물과 연계하여 포항만의 특색있는 음식투어상품을 만들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나고야 중부방송국은 1950년에 설립됐으며 나고야 본사에 도쿄와 오사카 등 6개 지역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나고야 일대 1천 300만명의 시청자들이 시청하고 있다.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경제위기 돌파구 마련



포항시는 25일 오후 3시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박승호 포항시장과 지역출신 이상득·이병석 국회의원과 경북도의회 이상천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이상구 포항시의회 부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국·도비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명박 정부의 5+2광역경제권 발전계획과 3대 문화권 문화·생태·관광기반 조성사업, 초광역권 발전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대응방안을 설명하고, 30대 국가선도프로젝트,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에너지 클러스터 등 포항의 미래성장동력이 될 전략사업들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행정안전부가 2012년까지 녹색성장사업에 1천972억을 투입하기로 함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할 중기 사업예산 확보에도 전략적으로 접근하기로 했고,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운영 중인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 각종 현안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그리고 영일만항 배후단지·국가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포항TP 2단지 등의 조성과 동빈내항 복원 등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2010년 국가예산 확보대상 사업으로는 영일만항 건설,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 동해남부선 및 동해중부선 부설 등과 신규사업으로 독일 막스플랑크 코리아 연구소 유치,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건설, 부품소재 전용공단 조성 등 23건의 대형 국책 사업에 대한 각종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요청과 함께 내년도 숙원사업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국·도비지원 대상에 반영되어야 할 사업들은 별도자료를 통해 건의했다.

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 조례 제정

올 8월 컨테이너부두 개항을 앞두고 영일만항 물류비용 경쟁력 제고를 위한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 조례'가 시의회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제정된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 조례는 포항영일만항을 이용해 화물을 취급하는 화주, 국제물류주선업자, 해상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국내외 항간간 치열한 경쟁속에서 영일만항을 이용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지원규모는 선사에 대한 항로연장지원금을 1개 선사당 3억원 이내, 3년간 5~7개 선사를 대상으로 5만원/TEU이내에서 지원하며, 선사의 특화항로 개설에 대한 운항 손실금 일부는 포항영일만항이 손실액의 50%, 1개선사당 최대 10억원 이내로 2년동안 지원하게 된다. 또 화주·물류기업에 대한 이용장려금은 4만원/TEU 이내로 영일만항의 전체물동량이 20만TEU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 조례로 포항시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개항 초기의 물동량 확보를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다.

경북 단체장, 영일만항 활성화 결의문 채택

경북도내 21개 시·군 지체단체장들이 지역내 컨테이너 화물을 영일만항에 보내주는가 하면 행·재정적 지원에 협력하는 등 영일만항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경북시장·군수협의회는 8일 경산시청에서 제11차 정례회의를 열고, 오는 8월 개항 예정인 영일만항 활성화에 적극 협조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장·군수협의회는 결의문에서 경북지역 산업단지에 대한 원활한 물류자원을 통해 지역 산업발전을 도모하고 영일만항을 러시아·중국·북한·일본 등 환동해권 경제 및 물류 중심항만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도로·철도 등 교통·물류망 구축에 함께 노력하는 한편, 지역내 컨테이너 화물이 영일만항을 통해 수출·입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지원기로 했다. 또 결의문에서는 기업의 물류애로를 개선하고, 영일만항을 활성화 하기 위해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 박승호 포항시장은 결의문 채택에 앞서 "8월 8일 개항을 앞두고 있는 대구·경북의 관문인 영일만항에 관심을 가져줄 것과 각종 세제혜택 제공, 물류비 절감 등의 행정적 지원을 약속하고, 경북 지역내 컨테이너 물동량은 영일만항을 통해 이용되도록 적극 협조 및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열차타고 재래시장 정보러 갑니다



포항시와 KORAIL대구지사가 3월 30일 전통시장 관광객 유치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박승호 포항시장과 김종원 KORAIL대구지사가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전통시장 테마관광열차 운영을 통한 관광객 유치에 공동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협약내용은 KORAIL 대구지사는 열차여행상품

을 개발하는 한편 관광객을 모집해 포항의 대표 관광지를 여행시키는 것이다. 또 죽도시장 등 전통시장에서 식사 및 장보기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포항시는 관광객이 편안하게 전통시장과 관광지를 투어할 수 있도록 시내은행버스와 안내봉사자를 지원한다.

▶▶▶ 불빛축제 축소해 일자리 만든다

포항시와 포스코는 포항국제불빛축제 예산을 대폭 절감해 청년실업자와 위기가정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쓰기로 했다. 포항시와 포스코는 지난 3월 31일 올해 포항국제불빛축제 예산 18억원 가운데 27.8%인 5억원을 절감해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절감되는 예산은 포항시가 당초 불빛축제에 부담하는 3억 4천만 원 중 1억원을 삭감하고 포스코와 기업이 부담하는 14억 원 중 4억 원 등 모두 5억 원이다. 이에 따라 올해 치러지는 불빛축제는 당초 8일에서 4일로 줄어들며, 지난해까지 북부해수욕장과 형산강고수부지에서 발사되던 불꽃 연화도 북부해수욕장에서 한차례만 쏘아올리는 것으로 축소된다. 또 5개국 6개팀이 참여하던 연화팀도 해외 2개팀만 초청할 계획이다.

▶▶▶ 뱃머리마을 문화콘텐츠센터(가칭) 건립



포항시는 사업비 270억원을 들여 남구 상도동 일원에 '뱃머리마을 문화콘텐츠센터' (가칭)를 건립기로 했다. 뱃머리마을 문화콘텐츠센터는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만 3천㎡의 규모로 노인복지시설, 여성문화시설, 주민복지시설, 자원봉사자시설, 청소년수련관, 소규모 도서관 등을 갖출 예정이다. 그동안 노인복지회관과 여성문화회관, 청소년수련관이 북구에 위치해 있어 남구 주민들의 경우 많은 불편이 있어 왔다. 하지만 뱃머리마을 문화콘텐츠센터가 완공되면 남구 주민들의 복지시설 접근성이 용이해져 문화활동이 폭이 넓어질 수 있고, 북구지역 복지시설 이용에 따른 포화상태도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석곡도서관, 동해면민을 만나다

동해면민의 숙원이었던 동해석곡도서관이 3월 27일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도·시의원을 비롯한 문화교육계 인사, 지역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개관식에는 시민이 다 함께 읽는 '올해의 책 2009 원복 선포식'도 함께 진행됐다. 석곡도서관은 지상 3층의 건물로 부지 4천468㎡, 연면적 1천210㎡의

규모로 국비 20억, 시비 9억을 들여 건립했으며, 2007년 현상공모를 통해 설계한 테라노바 작품이다. 주요시설은 일반 자료실과 어린이 자료실, 열람실, 휴게실, 각종 문화강좌와 영상물시청과 회의를 겸할 수 있는 다목적실을 갖추고 있다.

▶▶▶ 시내버스 정류소에 공중전화와 냉·난방기개



냉·난방기와 공중전화, 자동문이 설치된 다기능 시내버스 정류소가 등장했다. 포항시는 4월 7일 북구 흥해읍 영일민속박물관 앞 버스정류소를 다기능 시내버스 시범정류소로 설치했다. 정류소 규모는 길이 10m, 높이 2.5m, 폭 2.6m이며, 버스 타는 쪽에 자동문을 설치했다. 정류소 외벽은 강화유리 재질로 특수제작됐다. 이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시행된 시내버스 노선개편 및 무료환승제 시행에 따른 이용객들의 편의와 대기승객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후속조치이다.

▶▶▶ 4월부터 포항지역 택시요금 20.13% 인상

포항시 택시요금이 4월 1일부터 20.13% 인상됐다. 택시요금 인상내역은 기본요금 1,800원에서 2,200원으로 변경되는 등 아래 표와 같다. 그리고 0시~04시 사이에 운행한 요금에 대해 20% 심야할증, 사업구역(포항시)외 운행시 20% 시계외할증, 관할구역 내 외곽지로 운행하는 경우 50% 복합할증이 적용되며, 승객이 택시를 호출하여 이용하는 경우 1회에 1,000원의 호출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택시요금 조정내역

구분	기본요금	주행요금	시간요금
현재	2km 1,800원	170km 당 100원	41초당 100원
조정	2km 2,200원	145m 당 100원	35초당 100원
인상(율)	400원(22.2%)	25m(14.71%)	6초당(14.63%)

▶▶▶ 포항시, 자원봉사 운영도 경북 최고!

포항시는 경상북도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23개 시·군 자원봉사 운영상황 및 자원봉사센터 활동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도지사 표창 및 수상금 500만 원을 받게됐다. 이번 평가는 1차 자원봉사활동 평가지표 6개 분야 20개 항목 서류평가와 2차 현지 확인평가로 실시해 엄격한 심사기준을 거쳐 선정되었다.

▶▶▶ 보사산업위원회, 생활폐기물 자원시설 견학



포항시의회 보사산업위원회는 지난 4월1~2일 양일간 순천시를 비롯한 구미·원주시 등 3개 시를 방문하고, 이들이 운영하는 재활용시설의 합리적 실태 방안을 파악했다. 이번 견학은 포항시에서 생활폐기물을 선별·압축·포장하는 생활폐기물 자원재활용시설을 설치하기로 함에 따라, 시설 설치와 운영의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시설은 매립장의 수명 연장 과 대체 처리 시설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는 물론, 생활폐기물의 단순매립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해 자원재활용 및 에너지이용이 가능한 순환형 처리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다. 한편, 포항시는 1일 250톤 용량의 생활폐기물을 선별·압축·포장하는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 제153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폐회



지난 3월 18일 개최한 제153회 포항시의회 임시회가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의결 및 올해 첫 시정에 관한 질문을 펼치는 등 8일 간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고 25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포항시 6·25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과 포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읍면동 복지회관 등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한 10건의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 포항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는 간담회를 통해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상황 보고 등 20건의 시정 현안사항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시책 추진을 주문했다. 아울러, 23~24일 양일간 펼쳐진 시정에 관한 질문에서는 TKP철거에 따른 부지활용 방안과 지방공사 설립, 포항시향 지휘자 공채과정 의혹, 포항야구장 건립 문제점, 형산강 수질개선대책, 만남의 광장 조성, 동해남부선 추진 민원 등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포항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한편, 3월 25일 열린 4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에 이어 안정화 의원과 복덕규 의원이 차례로 나서 경로당 관리 실태 및 세계 물의 날 물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 점심시간 이용 가속기 연구소 방문



포항시의회 의원들이 회기 중 점심시간을 이용해 국내 유일의 첨단 거대 과학시설인 포항가속기연구소를 방문해 우리시의 자랑인 첨단과학 분야의 발전을 위한 바쁜 행보를 계속했다. 포항시의회는 지난 3월 20일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포항가속기연구소 초청으로 현지를 방문해 2010년부터 4년간 약 4천억 원이 투입되는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건설사업에 대한 현황과 현재 운영실태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방사광가속기 활용을 통한 IT, NT, BT, ET 등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발굴 및 산업화에 따른 연간 약 6~7조원 규모의 생산파급효과와 4천 명 내외의 직·간접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에 대해 관심을 표하고 활용분야 등을 중점 질문했다.

▶▶▶ 의장단, 경제난국 극복 추진상황 등 논의

포항시의회는 지난 3월 3일 오전 10시 30분 의정실에서 의장단 간담회를 갖고 경제난국 조기극복을 위한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추진을 주문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조기집행 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고 행정처리에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효과가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최영만 의장은 예산 조기집행 등 경제난국 조기극복을 위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아울러, "집행부와 의회가 신뢰와 열정을 한데 모은다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 2008년 기준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

포항시는 5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40일간 관내 사업체 및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를 벌인다. 조사내용은 사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 23개 항목이며, 읍면동 직원 및 조사원이 직접 사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한다. 사업체조사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기초정보를 수집하여 산업구조 파악, 지역통계자료 제공, 사업체단위 통계조사의 모집단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광업·제조업조사는 광업·제조업 부문에 대한 구조 및 분포, 산업 활동 실태를 파악하여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산업연구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실시된다. [문의 : 270-2205]

>>> 제4회 한마음 가족건강 걷기대회

- 일 시 : 2009. 5. 23. 09:00 ~ 12:00 (개회식 09:00)
- 장 소 : 환호해맞이공원
- 구 간 : 4km정도 (중앙공원 전망대 중앙공원)
- 참가인원 : 1,000명 정도 (가족단위 및 일반시민)
- 주최/후원 : 포항시여성단체협의회/포항시
- 부대행사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폐전전자수거 캠페인(폐건전지와 상품교환), 건강줄넘기, 가족소망풍선날리기, 무대공연 등 참가가족에게 기념품 증정

>>> 경찰, 총기류 일제점검 실시

경찰은 불법소지총기 단속 및 사건·사고방지 등 안전관리를 위해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총기류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 점검일자 : 2009. 3. 23 ~ 5. 22 (2개월간)
- 점검장소 : 포항남구(남부경찰서 생활질서계) 포항북구(관할지구대, 북부경찰서 생활질서계)
- 점검대상 : 5.5mm 단단, 5.5/6.4mm 단단 공기총, 공기권총, 마취총, 석궁으로 총기개·변조, 실물과 소지허가증 대조, 허가사항 변경 등을 점검
- 지참물 : 총기 등 점검대상물, 소지허가증, 신분증
- 당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점검을 기피·불응할 경우 점검대상물은 경찰서 무기고에 보관되고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 저소득 근로자가구 근로장려세제 시행

근로장려세제는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근로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시기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다.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통장사본 등)를 주소지 관할세무서 또는 www.eitc.go.kr로 우편방문 또는 전자신청하면 9월 말까지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된다. 지급대상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이다.

- 소득요건 : 부부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

- 부양요건 : 18세미만 자녀 1인 이상 부양 ('90.12.1 이후 출생)
 - 주택요건 :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천만 원 이하 주택을 소유
 - 재산요건 : 부동산/예금 등 일반재산 합계액이 1억 원 미만
- [문의 :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www.eitc.go.kr 를 방문하시거나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 110 또는 포항세무서 245-2623 ~ 9]

>>> 2009 포항시 시민상 후보자 추천 접수

포항시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자랑스러운 시민에게 수여하는 2009 포항시 시민상 수상후보자를 추천 받는다. 수상대상자는 전체 시민의 귀감이 되고 지역을 위해 헌신한 공적이 뛰어난 시민과 시정발전과 시민화합을 위해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시민, 그리고 지역을 위한 묵묵한 선행으로 포항을 빛낸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수상후보자 추천은 포항시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 기관장 또는 개인의 경우 세대주 3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추천 후보자는 포항시 시민상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며 오는 6월 12일 제6회 포항시민의 날 기념행사 시 수상할 예정이다. [문의 : 270-2074]

>>> 4월 29일은 경상북도교육감 보궐선거일

19세 이상(1990.4.30 이전 출생)의 주민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009.4.10) 현재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을 가진 주민은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여 신성한 주권을 행사합니다. 투표시간은 06:00 ~ 20:00이며, 투표소에 가실 때에는 주민등록증,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명서를 꼭 가지고 가져야 합니다.

>>> 새주소 예비도로명 주민 의견 수렴 안내

길 찾기의 편리성과 물류비 절감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12년부터 새주소로 사용하게 되는 포항시 예비도로명에 대한 주민의견을 아래와 같이 수렴한다.

- 의견수렴 : 2009년 4~5월중 실시
 - 열람장소 : 각 읍·면·동사무소 또는 포항시홈페이지 (<http://www.ipohang.org> 또는 <http://pohang.u-tube.or.kr>)
 - 주민의견 수렴 공고문 참조
 - 의견내용 : 도로 구간에 대한 기초 간격 및 번호 등
 - 의견제출 : 주민의견 수렴서 또는 인터넷으로 의견제출
- [문의 : 270-3491~4]

>>> 7월 시행 보육료(양육수당) 신청 안내

새로운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이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먼저 7월부터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 0~1세 아동 중 소득하위 50%이하 아동(2007.7.1 이후 출생)에 대해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되고, 9월부터 시행되는 i-사랑카드를 보육시설에 지원하던 보육료를 부모에게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전자카드에 담아 지원하면 보육시설에 카드결제(금융기관 신한은행에서 i-사랑카드 발급하여 신청인에게 배송)는 제도이다.

무상보육료 지원대상 확대실시에 따른 보육료 지원신청 및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신청서제출장소 : 아동 주소지 읍·면 동사무소 및 주민센터
 - 집중신청기간 : 4월6일~5월8일(연중 보육료 지원신청 가능)
- [문의 : 포항시 여성가족과 270-3023~7/해당 읍면동]

>>> 5월 시민정보화 교육(무료) 안내

- 교육과정 : 컴퓨터왕초보 등(9개과정 9개년)
 - 교육대상 : 포항시민 누구나(기 이수한 교육과정 수강신청불가)
 - 신청기간 : 5월 4일 09:00부터 선착순
 - 인터넷접수방법(컴퓨터왕초보과정은 10%, 기타과정은 접수인원의 30%이상) 및 기타내용은 <http://culture.ipohang.org> (강좌/시설/공연 안내서비스)로 접속후 아이디어란에 ipohang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 수강신청 가능한 강좌명을 선택
- [문의 : 정보통신과 지역정보담당 270-2304]

>>> 안전띠 ON, 휴대전화 OFF

포항남·북부경찰서는 4월까지 홍보기간을 거쳐 5월부터 안전띠 미착용 및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집중 계도 및 단속에 나선 예정이다. 경찰은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안전띠 ON, 휴대전화 OFF”로 안전운행을 당부하고 있다. 안전띠 미착용은 도로교통법 제50조1항에 의거 범칙금 3만원, 운전 중 휴대전화사용 위반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9조1항10호에 의거 범칙금 6만원(승합 등 7만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 전국장사씨름대회 5월에 포항시 열린다

제6회 연합회장배 국민생활체육 포항 전국장사씨름대회가 오는 5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 동안 포항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박승호 포항시장과 최영만 국민생활체육 전국씨름연합회장(포항시의회의장), 황경수 전국씨름연합회장 등은 3일 포항시청 중회의실에서 포항전국장사씨름대회 협약서 조인식을 갖고 대회 개최에 합의했다. 이번 대회에는 16개 시·도 대표팀과 20개 초등학교가 참가해 학교와 향토의 명예를 걸고 4일간 열전을 벌이게 된다.

>>> 포항 수돗물, 마음 놓고 먹어도 된다

포항시상수도사업소는 3월 30일 지역에 공급되는 모든 수돗물이 전 항목에 대해 모두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적합하다고 발표했다. 상수도사업소에 따르면 지난 3월 10일 원수(하천수 및 호소수) 9개소, 정수 8개소, 노후지역 수도꼭지 8개소, 급수과정별 28개소(정수장별 주배수지전, 주배수지후, 급수구역유입부, 관말수도꼭지) 수돗물을 채수하여 원수 환경기준 32개 항목, 정수 먹는 물 수질 기준 56개 항목, 노후지역 수도꼭지 먹는 물 수질 기준 10개 항목, 급수과정별 먹는 물 수질 기준 11개 항목에 대한 검사결과 모두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의 : 전화 270-5454나 홈페이지(<http://water.ipohang.org/>)]

>>> 죽도동, 광주광역시 우산동과 자매결연 협약



죽도동주민센터(동장 김완수)는 시·도 간 지방자치단체 우수동과 새로운 지방자치 행정을 실현하고 우수시책과 사례를 상호 교류하여 지역 간 우의를 다지고 나아가 글로벌 자치시대를 이끌어 내어 지역상호간 공동발전에 기여하고자 자생단체장 및 직원 15여명이 광주광역시 우산동을 방문하여 자매결연 협약을 가졌다. 두 동 간의 우호교류 증진을 위하여 사회·경제·문화 등의 각 분야별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푸른포항21, 녹색성장 심포지엄 개최

푸른포항21추진협의회(공동대표 김수근·지수옥)는 4월 2일 포항 여객선터미널 앞 해경 경비함 선상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시민실천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박승호 포항시장을 비롯한 푸른포항21 지역위원, 일반시민 등 400여명이 참여해 동빈내항의 수질환경개선을 위해 EM발효액 3톤을 동빈내항에 방류하는 행사도 함께 실시했다. 또 최근 지구촌의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김택천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과 구자문 한동대학교 교수의 주제 강의와 EM의 효능과 활용방안에 대한 도말순 양산벨앨병원 원장의 특강도 있었다.

>>> 육아 돌봄 서비스 필요하신 분 연락주세요!

포항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난 2월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친 신규 돌보미 23명을 선발해 3월 23일부터 29일까지 50시간의 양성교육을 마쳤다. 이에 따라 포항시에서는 2008년 1기 돌보미 30명과 함께 총 53명의 아이돌보미가 육아부담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파견되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맞벌이, 교육참여, 자녀양육 부담 등으로 육아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은 연 480시간을 유형별 요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아이들은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동화책 읽어주기, 간단한 식사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문의 : 포항시건강가정지원센터 244-9009, 270-5975] [아이돌보미지원사업 홈페이지 www.idolbom.or.kr]

아름다운 사람들의 잔치 ‘포항사랑자원봉사대축제’에 참여하자



2008년 자원봉사대축제 사진부문 대상

포항시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권순남)는 4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10일간 ‘자원봉사! 희망에너지’를 주제로 제9회 포항사랑자원봉사대축제를 연다. 이번 축제는 개인·가족·학생·기업단체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봉사 장소는 자원봉사활동이 가능한 곳이면 어디나 가능하고, 최소 2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벌여야 한다. 공모부문은 프로그램, 사진, 사례수기 등 3개 부문이며, 오는 5월 2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당선작은 6월 1일부터 열흘간의 심사를 거쳐 6월 19일 언론 및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문익는 전화 248-8742~3, 231-1348로 하거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된다.

자원봉사대축제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잔치로 시민사회 구축에 있어서 기초적인 영역인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인류의 가장 고귀한 열망인 평화·자유·기회·안정·정의의 추구에 생명력을 모아 가는 자아실현의 장이자 시민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시간 재능 에너지를 타인과 지역사회에 제공하여, 이웃과 동료에 대한 상호관심, 봉사에 대한 인간적 가치가 지지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실천의 장이다. 그리고 각계각층의 아름다운 사람들이 참여하는 자원봉사야말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가는 힘이라는 사실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려내는 자원봉사 홍보의 장이기도 하다.

>>> 꽃보다 아름다운 명도학교 아이들

지난 3월 30일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가슴 뭉클한 장면이 연출됐다. 정신지체 청각장애 정서장애를 앓고 있는 명도학교 장애아동들이 한 푼 두 푼 모은 저금통을 깨 포항시가 추진하고 있는 장학금 300억 모금사업에 보태달라며 모금액 326만 2천원을 전달해왔다. 그동안 세상으로부터 도움만 받아왔으나 이제는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웃에게 사랑의 손길을 전하고 싶다는 뜻에서 107명의 교직원과 195명의 장애학생 모두가 참여해 빠짐없이 성금을 모은 결과였다. 명도학교는 89년 3월 개교해 현재 초 중 고 33개 학급으로 편성돼 있으며, 지적장애 학생 154명, 지체장애 학생 20명, 정서장애학생 11명, 청각장애 학생 4명이 수업을 받고 있다.

>>> 통역 및 번역 상담서비스 제공

포항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윤영란)는 3월 16일부터 결혼 이민자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의 편의를 위해 통역과 번역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상담서비스는 결혼이민여성 이면서 한국외국어대학교의 통 번역 양성교육을 이수한 중국인 추가소(40세) 씨와 일본인 미유끼(34세) 씨가 담당하고 있다. 이들 통역서비스 전담자는 결혼이민자를 위한 입국초기상담에서부터 정착지원, 국적 체류관련 정보제공, 임신 출산 육아 등 다양한 생활정보안내에 대한 통역과 상담을 지원한다.

>>> 300억 장학기금 조성, 개인 최고 금액 기탁

한 중소기업가가 장학기금 3억원을 쾌척해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인물은 대신철강 김도형(44) 사장. 김사장은 7일 박승호 포항시장을 찾아와 ‘300억 장학기금 조성’ 사업에 서달라며 3억원을 내 눈길을 모았다. 3억원은 지난해 4월 ‘300억장학기금 추진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지난해 5월 1억원을 낸 정화식품 최무도씨에 이어 개인이 낸 최고금액, 특히 김 사장은 직원 15명의 철강유통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그마한 중소기업으로 알려져 더욱 관심을 모았다. 부산이 고향인 김 사장은 “지역 인재발굴과 장학사업에 적극 동참해 향토기업으로서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에 솔선수범하고 싶다”고 말하고 포항시장장학사업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화환대신 백미 기증받아 어려운 이웃에 전달

화순차유리(대표 허동수)는 사업장을 확장개업하면서 축하 화환대신 기증받은 백미(20kg 45포, 10kg 75포)를 지난 6일 어려운 이웃과 시설에 전달했다.

>>> 저소득 이웃에 의료비 지원

영일만라이온스클럽 최진호 회장은 만성질환인 C형간염으로 치료비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앙동 거주 변모씨(50세 여)에게 의료비 50만원을 지원하고 격려했다. 이번 지원은 포항시 주민생활지원과가 가정형편이 어려운 세대와 후원자와 연결해 주는 연계서비스사업의 결과로 이루어졌다.



[제목] Happy birthday to U | 크기 | 200cm X 120cm | 재료 | 유화



박계현 Park, Kye Hyun

청림초등학교 / 대동중학교 / 포항고등학교 31회 /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졸업(서양화전공)

개인전 / 초대전

- 1991. 5 1회개인전 (한성갤러리, 대구) 1992.11 2회개인전 (봉성갤러리, 대구)
- 1993. 6 3회개인전 (봉성갤러리, 대구)
- 2000. 9 2인 초대전 (포스코갤러리, 포항, 개인회향 후원)
- 2002. 6 4회개인전 (백리도갤러리, 대구, 개인회향 후원)
- 2007. 6 5회개인전 (시인아트홀 개관기념 초대전, 포항)

기타 그룹전 / 기획전 다수

수상경력

- 1987 경북미술대전
- 1988.91 대구시미술대전
- 1994 대한민국미술대전
- 1995 목우회 공모전
- 2006~7 불빛미술대전

작품평

중국 송나라의 황제 휘종은 그림을 몹시 좋아하는 임금이었다. 그래서 자주 궁중에 화가들을 초대하여 그림대회를 열었는데 그는 곧잘 시의 한두 구절을 골라 이를 화제로 내놓곤 했다. 한번은 “꽃을 밟으며 돌아가니 말발굽에 향기가 나네. 踏花歸去馬蹄香”라는 화제가 주어졌다. 말발굽에 나는 꽃향기를 그림으로 그리라는 주문이다. 모두들 손대지 못하고 찢절매고 있을 때, 한 젊은 화가가 그림을 제출했다. 달리는 말의 꼬무늬에 나비 떼가 자욱이 따라가는 그림이었다. 나비 떼라는 형상으로 말발굽에 묻은 향기를 슬기롭게 재현 해낸 것이다. 이처럼 향기를 직접 그리려 하지 않고 다른 형상을 내세워 향기를 표현하는 것을 그림에서는 입상진의(立像盡意: 형상을 세워 뜻을 나타냄)라고 한다. 박계현은 질박한 유화의 전통적인 맛과 깊이를 일관되게 추구해 온 작가이다. ‘Happy birthday to U’는 아내의 생일날 아내에게 바치는 마음의 꽃다발이다. 고맙고 사랑하는 애잔한 마음을 표현하기에, 글은 말을 다하지 못하고 말 또한 뜻을 다하지 못한다. 사랑한다는 일상의 말보다 넉넉히 건네는 마음의 꽃다발, 작가의 입상진 의가 잔잔하게 느껴지는 대목이다.

[김갑수 포항시립미술관장]